

월요광장



이승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우리나라에 뇌교육 전문가를 파견해 주십시오.”

2011년 1월, 유엔 NGO인 국제뇌교육협회가 유엔에서 개최한 뇌교육 세미나에 참석한 카를로스 가르시아 엘살바도르 유엔대사는 이렇게 요청했다. 이 뇌교육 세미나에는 21개 국가의 유엔 대표부가 참석했다.

그 가운데 엘살바도르 유엔대사가 자국의 외교부를 통해 국제뇌교육협회 강사를 수도 인근 공립 초등학교로 공식 초대했다. 이 공립 초등학교는 학부모 절반이 깔고, 낮에도 무장군인이 도시를 지키고 있지만, 빈빈한 총기 사고와 사회 폭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늘 받는 곳이었다.

이런 곳에서 뇌교육 전문가가 교사 24명과 8학년생들에게 뇌교육을 실시했다. 3개

세계에서 각광받는 뇌교육

월 간 ‘뇌교육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는 놀라웠다. 학생들 얼굴에 웃음이 되 살아났고, 학교에 오기 싫어하던 학생들이 학교로 달려왔다.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숙제까지 해오며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팔굽혀펴기를 시작하여 25개에서 2주 만에 50개 목표를 달성한 소년은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며 자신감에 환호성을 질렀다. 건강하고 밝아진 아이들, 성격과 집중력이 좋아진 아이들의 변화에 가장 기뻐한 이들은 교사와 학부모들이었다. 이 사례는 엘살바도르의 언론과 국내 언론에 집중 보도되었다.

유엔 관계자들은 이 교육의 기적을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12년 11월1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뇌과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 등 80여 명의 유엔관계자가 참석하여, ‘빈곤 퇴치와 복지 실현을 위한 뇌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2011년 엘살바도르에서 최악의 사회안정만을 가진 토라카테파쿠 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뇌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리였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뇌교육 프로그램을 2012년 8개 학교에 확대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라이베리아에서도 뇌교육 전문가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엘살바도르 뇌교육 시범 프로젝트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글로벌교육지원사업’에 선정돼 정부 차원의 공식 원조를 진행하게 되었다.

주관 기관인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엘살바도르 학생들의 정서조절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공교육 지원 및 뇌교육 컨설팅’이란 프로젝트로 뇌교육융합학부 교수 등 5명의 연구진을 현지에서 파견해 전담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4개 학교에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고, 엘살바도르 교육부는 최근 180개 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서는 23개 도시에서 ‘뇌교육의 날’을 선포할 만큼 뇌교육 바람이 일고 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청소년 마약 복용률과 청소년 사망률이 높은 뉴멕시코 주의 샌타페이 시 매니팔 하이스쿨은 뇌교육을 도입하여 정학과 퇴학, 범죄가 사라지고 출석과 성적, 인성이 향상됐다. 샌타페이 시장은 2011년 12월17일 샌타페이 시를 ‘뇌교육의 도시’로 선포하기도 했다.

현재 뇌교육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현장에서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는 청소년 멘탈헬스 심포지엄이 오는 18일 오전 서울플라자호

텔에서 열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엘살바도르 뇌교육 시범 학교 교장이 와서 그 동안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안 사례로 공유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의 중요성을 되돌아 보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이룩한 새로운 ‘교육 변화 보고’를 통해 다양한 교육문제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국제뇌교육협회(IBREA, www.ibrea.org)는 2004년 “뇌교육을 통한 흥익인간 정신의 세계화”를 목표로 설립하여, 한국 뇌교육의 확산활동 교류 및 보급, 인증 등을 담당한다. 2006년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설립 이후 2008년 6월 유엔본부에서 100개 국 협회 창립을 통해 국제뇌영리단체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미국 뉴욕에 세계화 본부를 두고, 100개국에 뇌교육을 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뇌교육이 보급되면 대한민국은 21세기 교육 선진국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 오늘날 ‘뇌과학’이 여러 과학 분야가 참여하는 통합 과학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머지않아 뇌교육이 모든 교육의 기반이 되고 중심이 될 것이다.

법조칼럼



강성웅
광주지검 형사 3부 검사

유럽 특히 프랑스에 가보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나 신호등에 개의치 않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혹자는 프랑스 보행자들의 이러한 습성을 ‘틀레랑스(Tolerantia)’라는 용어를 들어 설명하기도 한다. 틀레랑스란 남의 생각과 행동, 취향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틀레랑스와 메이와쿠

의미하는데 우리말로는 관용정신으로 해석된다.

언뜻 무질서해 보이지만, 좁은 도로가 복잡하게 얽힌 도심에서 신호와 횡단보도를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종종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나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나를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방편이므로 프랑스의 보행문화는 틀레랑스로 상징되는 그들 특유의 여유를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현상이라 하겠다.

반면 일본에서는 보행자들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야간에 인적 없는 지방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마저 정지신호를 지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일본인 특유의 ‘메이와쿠(迷惑)’의식이 교통 질서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영국의 뉴스위크지는 대지진과 쓰나미의 폐허 속에서 새치기하는 사람 없이 몇 시간이고 줄을 서 차를 기다리는 일본인의 모습은 인류의 정신이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극찬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특유의 메이와쿠 정신이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매뉴얼에만 기계적으로 매달리는 답답함과 후진적인 정치관행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있으므로 세상사 이치는 그리 간단치 않음이 분명하다.

우리가 사는 이곳 광주의 교통질서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아가자기한 가게들이 즐비한 충장로 거리에서 소통과 소리를 즐기는 행인들 속으로 들어가 광주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것은 기본 좋은 경험이다. 운전자들이 보행자에게 양보하며 조심스레 운전하는 모습도 자연스럽고 흐트럽다. 하지만 왕복 6차로 이상의 대로에서 아무런 거리낌없이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를 볼 때,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불꽃 나타난 보행자를 가까스로 회피할 때의 아찔한 느낌은 사투리라며 극찬하였다. 이런 것도 광주 특유의 틀레랑스 발현으로 종종받아야 할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언연중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각박관념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언젠까지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마주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운전하여야 하고,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없지 않다면 횡단보도를 걸어야 한다는 뜻이다. 뜻밖의 기회비용 지출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의도치 않은 다툼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예항의 고장, 민주주의 성지로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 광주가 특유의 문화적 감수성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해본다.

社說

근성없는 KIA 야구, 분노하는 호남 팬심

호남야구의 명가 KIA 타이거즈가 잇단 졸전을 벌여 팬심이 들끓고 있다. 시즌 초반 우승전력이라는 평가 속에 시작된 화려했으나 지금은 4강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선수들의 근성도 찾아볼 수 없어 팬들의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다.

작금의 KIA 야구는 한마디로 말해 실망 그 자체이다. 언제부턴가 호랑이 의 야성이 사라지면서 유약하고,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든든한 마운드와 화끈한 공격력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야구’를 펼쳐왔던 KIA만의 색깔이 실종된 것이다.

무너질 때 너무 쉽게 무너지고, 선수들 또한 자신감은 물론 위기 의식조차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와 다른 것은 마운드의 불안과 벤치의 전술·위기 관리 능력 부재까지 겹치면서 패(敗)만 쌓여가고 있다.

선동열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팬들은 ‘데이터보다는

감에 의존하는 야구’, ‘화끈한 공격보다는 번트로 기회를 날려버리는 야구’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물론 아무리 명장이라도 취임 2년 만에 팀을 완벽하게 재정비해 정상에 올려놓기는 어렵다. 그렇다 해도 현재의 가라앉은 팀 분위기는 명장의 자존심에 걸맞지 않는다.

호남인에게 있어 KIA 타이거즈 야구는 단순한 경기만의 의미가 아니다. 10차례에 이르는 한국시리즈의 우승을 통해 5·18 이후 상심한 지역민들의 울분을 달래고, 미래의 꿈을 이루게 했던 호남인의 자부심이었다. 가족이나 오랜 경기친척과 지난 대선의 여파로 가라앉아 있는 호남인에게 KIA 야구가 힐링이 되지 못하고, 되레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KIA 야구의 분발을 다시금 촉구한다. 시즌 중이라 팀을 전면 리빌딩하기는 어렵겠지만 분위기 쇄신을 위한 조치는 꼭 필요하다. 자신감과 근성 회복이 급선무다. 소속한 명가의 부활을 당부한다.

경찰, 공무집행방해혐의 남발은 안 된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 검거하는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고 있으나 대부분 불구속으로 풀려나거나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소극적 방해나 경미한 혐의 등으로 10명 중 9명이 불구속 내지 무죄를 선고받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시민들 ‘기강 잡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1004명으로 2010년 258명, 2011년 277명, 지난해 329명 등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도 벌써 140명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술에 취해 경찰관 등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가장 많다고 한다. 술 기운에 공권력을 경시, 무작정 폭력을 휘두르는 ‘주폭’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경찰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가 불구속으로 풀려나

는데다 구속 인원도 줄고 있어 공권력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술에 취해 단순히 인성을 높이고, 욕심을 하는 등 경미한 방해 행위나 소극적인 행위까지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건 자칫 공권력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얘기도 있다.

공권력이란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법적·제도적 강제력으로서, 질차와 증거 등 정당성이 전제되어야지 감정적이고, 관행적으로 대응하는 건 억울한 전과자만 양산할 뿐이다. 공권력이 흔들려선 안 되는 일이지만 과잉 대응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기고

새 단장한 농업박물관으로 오세요



김우성
전남농업박물관장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전남농업박물관이 본관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지난달 중순 재개관했다. 농업에 테마로 한 전국 제일의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신 전시기법을 도입하고 전시 유물도 더욱 다양화하는 등 1년이 공사 끝에 다시 문을 열고 손님맞이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93년에 문을 연 농업박물관은 농경유물의 수집·보존·전시 등을 통해 후손들에게 조상들의 슬기로운 삶을 일깨워주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전시시설은 낙후해졌고, 전시기법 또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못해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농업

박물관은 지난해 7월부터 본관 전시실을 휴관하고 전면 개선, 이번에 재개관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이 선보인 본관 전시실은 ‘영원한 인류의 생명창고 농업’이란 주제로 연출됐다. 농경역사실, 농경사계실, 공동체문화실 등으로 구분해 기존의 나열식 전시에서 탈피, 최신 전시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농경역사실은 선사시대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농경문화 발달사를 시대 순으로 전시, 한반도 농경의 시작부터 다양한 농기구 유물은 물론 농경기술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다. 또한 영상자료를 곳곳에 배치해 학생들의 교육적 이해도와 전시 주제에 대한 흥미를 높임은 물론 농경 생활에 있어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어땠는지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아주 오랜 고대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의 과학농기법을 짐작케 하는 전시 연출도 있어 관람객들로 하여금 갑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온실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1450년 편찬된 신기요록에 근거해 제작 전시한 ‘세계 최초의 온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3면에 토담을 쌓고 벽

과 창에 기름종이를 발라 햇빛이 들게 해 온도를 조절, 채소를 재배한 영농기술로 현재 세계 최초라고 알려진 독일 온실보다 170여년이 앞선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날의 유리 온실이며, 태양열 에너지 기술 등이 모두 여기에 연유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다.

농경사계실은 옛 농촌의 풍경과 사계절 농경 생활모습을 각종 농경 유물과 함께 실제 당시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생생하게 꾸며 놓았다. 공동체 문화실은 농경문화와 관련한 각종 노동과 신앙, 놀이 문화로 구분해 조상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 삶에 깃든 지혜와 여유를 엿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농업박물관은 본관 뒤편에 ‘쌀 박물관’과 쌀농업공원시설도 내년 상반기 중에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쌀 농업의 미래 등을 테마로 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3차원 입체영상실, 쌀 요리 체험실, 유기농관매센터, 친환경농업학습장, 생태연못, 주말농장, 가족실 등도 갖춰 관람·교육·체험·휴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물관을 찾은 학생들이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사상, 지혜, 가치관 등이 녹아 있는 전시를 보면서 미처 몰랐던 과거의 생활상

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자연스럽게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새로운 상상력을 키우게 될 것으로 자부한다.

프랑스, 그리스 등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보면 학생들이 줄지어 관람을 하고 수첩을 들고 꼼꼼히 메모해가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 학교에서 박물관 과제를 내주며 제출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자기 문화에 대해 전문가가 돼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할 때는 있지만 수첩을 들고 꼼꼼히 읽고 메모하는 경우는 드물다. 박물관 잘 갖춰진 시청각 교육기관이 없을 터인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외국처럼 박물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저와 전 직원들은 오늘도 관람객을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업박물관에 들르면 멋들어진 옛 농촌 풍경과 함께 조상들의 흔과 지혜를 한눈에 엿볼 수 있는 등 분명 후회하지 않는 색다른 체험 관광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들을 올바르게 교화하고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학교에서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가르쳤으면 한다. 교과목에 적절히 삽입하는 방법도 있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사회 저명인사나 지역 유지들이 돌아가며 범죄예방 순회교육을 해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동경하듯 지역사회 저명인 인사들을 만나 그분들의 인생담론을 듣는다면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정·광주시 북구 생용동

無等鼓

오래 전, 비올리스트 용재 오닐의 공연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묵직한 비올라 음색으로 전해지던 ‘자클린의 눈물’과 ‘섬집 아기’의 멜로디는 깊은 울림을 줬고, 그의 연주에서는 ‘진심’이 보였다.

당시 인상적이었던 건 공연장 로비에 서 있었던 사인회 모습이었다. 그가 한창 주가를 올리는 때라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는 관객들의 줄이 무척 길었다.

로비에 나타난 그는 정말 열심히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었다. 팬들의 손을 잡아주고, 사인을 찍을 수 있도록 포즈를 취해주고, 무엇보다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았다. 글을 쓰기 위해 당시 찍었던 사진을 찾아보니, 그때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많은 사진 속에서 그는 언제나 ‘원하게’ 웃고 있었다.

사인회가 꼭 좋은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건 아니다. 얌체같은 경우도 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열렸던 한 음악가의 사인회는 음반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돼 진행됐다. 보통 음반이나 기념품을 구입해 사인을 받기도 하지만 많

은 이들이 공연 팸플릿이나 포스터, 수첩 등에 사인을 받는 걸 감안하면 너무 장사속처럼 보여 아쉬웠다.

최근 한 뮤지컬 배우가 페이스북에 사인회가 귀찮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그 여배우는 ‘사인회 싫어. 공연 끝나고 피곤한데 웃음 지으며 재미있게 보셨어요? 성함이? 발실발실. 얼굴 근육에 경련난다’는 글과 울상을 하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항의가 이어지자 그녀는 “공연 후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 있는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결국 뮤지컬 6회 출연 정지를 당했고, TV 코미디 프로에서는 그녀 사건을 패러디하기도 했다.

분노하는 팬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이번 일로 한 배우가 무대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맘 풀리며 노래하고 춤추며 그녀를 기억하기에 ‘무대’를 빼앗겨 버린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는 건 안타깝다. 좌절에 빠진 배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팬들의 힘’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팬과 사인회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연예매체부 2200-621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명인사들 나서 청소년 범죄 순회교육 하자

청소년들의 범죄가 인터넷의 발달로 더욱 흉포해지고 그 빈도도 많아지며 자꾸만 저연령화돼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현재의 청소년 범죄는 과거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즉 과거에는 소년범죄라고 하면 결손가정과 굶주림을 떠올릴 정도로 절대빈곤이 청소년 범죄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 세대는 물질적인 결핍을 모르고 자라난 세대이다. 범행의 동기가 배가 고파서, 생활비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희비를 마련한다든지 호기심으로 한다든지,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과거와는 달라진 경우가 많아졌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일생 중에 어떤 시점에 어떤 큰 금지된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대개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저

지른다고 하더라도 심각하지 않은 범죄를 수차례 하다가 어떤 계기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은 범행을 되풀이함으로써 더욱 자주 불법행동과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돼 문제가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범죄에 무감각해지며 서서히 만성화돼 간다고나 할까.

따라서 습관적 범행에 익숙해진 청소년이 적절한 기회에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들을 올바르게 교화하고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학교에서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가르쳤으면 한다. 교과목에 적절히 삽입하는 방법도 있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사회 저명인사나 지역 유지들이 돌아가며 범죄예방 순회교육을 해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다.